



"소 앞에서 한 말은 안 나도 어미 귀에 한 말은 난다"

뜻: 아무도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한 비밀 이야기도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니, 항상 말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말조심 · 비밀 · 관계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소	앞	에	서	한	말	은	안	나	도
어	미	귀	에	한	말	은	난	다	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소	앞	에	서	한	말	은	안	나	도
어	미	귀	에	한	말	은	난	다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사] [ㅇㅇㅏ] [흥] [모ㅇ] [ㅇ] [나드] [ㅇㅁ] [ㅈㅇ] [흥] [모ㅇ] [나드]

웹에서 보기

